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설화 연구*

-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대상으로

김신정**

<차 례>

1. 서론
2. 단종 설화의 서사적 화두 : 단종의 죽음
3.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 설화
4. 결론

<국문초록>

단종에 관한 설화는 사실과 허구를 포함한 전설로서 구술 전승되었는데, 단종의 죽음 사건을 중심으로 단종의 죽음이 지닌 비극성과 죽은 단종의 신성성을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종 설화에서는 엄홍도에 대한 이야기 전승자들의 상반된 태도도 발견된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산에 묻은 엄홍도는 주로 충신으로 묘사되면서도 일부 각편에서는 훗날의 신분 상승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왕의 시신 수습을 한 사람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단종 설화를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 이론에 따른 문화적 기능기억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저장을 위한 ‘기술’로서의 기억과, 재구성과 변화를 지향하는 ‘활력’으로서의 기억이 있다. 이때, 단종 설화는 재구성과 변화를 지향하며 명징화와 반기억의 형식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기능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억의 명징화는 단종 설화 속 단종의 죽음에 대한 회자가 단종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것이 단종신에 대한 숭배 행위로 연결되는

* 이 글은 2021년 8월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및 목포대학교 HK+사업단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시고 필자의 부족한 생각을 채워주신 윤예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것으로 설명되며, 반기역은 단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화자 스스로 반복하거나 주로 엄흥도의 충심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종 설화에 반하는 의심의 시선이 서술의 주요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통해 설명된다. 단종 설화는 고정된 기억을 구술 전승하지만, 동시에 이야기 향유층의 현재와 결부되어 있으며 그들을 주체로 한 변화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단종 설화, 단종의 유배, 단종의 죽음, 엄흥도의 시신수습, 문화적 기억, 기능기억

1. 서론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1441~1457)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비운의 왕이다.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문종이 재위 2년만에 죽자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숙부였던 수양대군의 섭정을 받다가 폐위되었고, 영월로 유배를 간 후 그곳에서 17세의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단종유배 관련설화에서는 단종이 자신이 죽은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머루를 전해주러 오던 백성을 길에서 만나 ‘나는 이제 태백산 신령이 되었다’고 말한 후 말을 타고 사라지는 전설을 전한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3년 만에 폐위되었고, 역시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치적도 남기지 못했으나 대신에 영속적으로 영월 일대를 다스리는 태백산 신령이 된¹⁾셈이다.

이렇듯 역사적 인물로서의 단종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유배된 영월지역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기록물로는 알 수 없는, 단종이 유배길에 들렀다던 우물이나 고개의 유래담 등이 지명 전설로 구술 전승되

1) 허용호, 「태백산 신령 단종본풀이」의 구성과 ‘공동의 신비체험」,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370쪽.

며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전한다.

단종 설화는 사실과 허구를 포함한 전설이다. 단종의 유배와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구술 전승자들에 의해 서사화될 때 즉, 실제 일어난 일들이 스토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승될 때 이야기 수용자들은 이 스토리들을 화자가 진술하는 방식과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때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재현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덧붙이고, 틀 짓고, 채색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굴절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²⁾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허구적 이야기에는 전승자들의 의도와 세계인식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는 이야기 안에 깊게 자리한다.

이야기는 구술 전승되는 과정에서 매체로서 공공의 기억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현대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미디어가 사회구성원들의 사적기억을 공적기억으로 변환³⁾시키는 것처럼 과거 구술 전승되었던 이야기 역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 도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설의 전승자들은 전설의 기이하고 놀라운 내용을 통해 상식이나 통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⁴⁾고도 한다. 단종 설화는 이처럼 이야기 향유층 안에서 집단적 기억으로 만들어져 정체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문화적 기억이라 할 수 있다.

단종 설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단종 설화에 나타난 전승의식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강진옥은 단종자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역사적 관점과 민속적 관점이 교차된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고 단종 관련 설화텍스트

2)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3장. 서사의 경계”,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20, 82쪽.

3) 주재원,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 기억의 재현-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1,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11쪽.

4) 강동학 외, “2장. 설화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6, 114~115쪽.

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종 설화 텍스트를 ‘단종 관계 언어전승물’로 통칭하고 그 서사구조와 의미를 통해 영월주민들의 의식세계를 탐구하였다. 그는 단종 관계 언어전승물은 단종의 생애를 ‘폐위-유배-죽음-신격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서사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단종 삶의 편린들이 백성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환기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단종관계 언어전승물의 구조가 건국신화의 구조를 재현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원혼형 서사를 차용하는 가운데 현몽(現夢)이나 신탁(神託)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단종 관계 언어전승물에는 단종의 생애를 바라보는 민중적 시선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

이어 최명환은 단종이 역사, 민속,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긴 했지만, ‘지역민’이 단종에 대해 갖는 의식과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문화유산의 전승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민의 의식(儀式)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단종 복위 전과 후에 어떤 의식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종 복위 전의 의식에서는 실록의 기록들을 통해 지역민들이 비밀리에 단종의 묘를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치제를 치루었음을 밝히고 있고, 복위 후의 의식에서는 영월지역에 전승되는 전설(〈금사하 전설〉과 〈고경춘 전설〉)을 비롯한 민요와 민속놀이를 통해 숙종에 대한 고마움과 단종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

조수미와 한태문의 연구에서는 단종 전설의 신원(伸冤)적 성격에 주목하여 어떠한 서술전략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구

5) 강진옥, 「영월지역 단종관계 언어전승물의 서사세계와 지역민의 의식세계」,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 문화』, 민속원, 2002, 109~131쪽.

6) 최명환, 「단종설화의 의식 변이양상-단종 복위 전후 영월 지역민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강원민속』 17,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3, 255~285쪽.

비문학대계의 단종 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단종 이야기 전승자들의 서술전략들을 살펴보았다. 단종 전설에는 이야기 전승자들이 단종에게 연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원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비극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단종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고 해석하였다.⁷⁾

가장 최근의 연구인 이승민의 논문에서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비교를 통해 단종 죽음 관련 설화에 담긴 전승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헌설화에는 단종의 타살이야기가 많고 구비설화에는 단종의 자살이야기가 많은데, 문헌설화를 작성한 지식인층은 타살이야기에, 구비설화를 전승한 민중들은 단종의 자살이야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단종의 타살담과 자살담은 깊은 층위에서 공통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단종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자기반성이라고 하였다.⁸⁾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종 설화가 구술전승집단이 단종에 갖는 연민과 동질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리한다. 단종 설화는 비운의 왕 단종에 대한 민중의 연민과 동질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종 설화라는 문화적 기억은 계속 변화되는 행로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 설화가 구술전승의 주체들이 처한 맥락과 현재적 관점에서 계속 재구성될 수 있는 문화적 기억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7) 조수미·한태문, 「유배(流配)[귀양] 인물 전설의 신원(伸冤)적 성격과 서술전략 연구 -단종 전설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59~178쪽.

8) 이승민, 「단종 죽음 관련 설화에 담긴 전승의식 연구-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비교를 통하여」, 『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회, 2020, 103~129쪽.

2. 단종 설화의 서사적 화두 : 단종의 죽음

1) 단종 설화의 핵심 화소와 서사적 화두

설화 전승 집단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화 형성의 원천적 기반인 역사적 사실이 설화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⁹⁾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설화는 분량이 짧지만 엄연히 서사를 이루고 있고, 서사는 사건의 결합과 연속으로 이루어지므로 역사적 사실의 형상화에 대해 어떠한 사건의 결합과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전승 의식이라는 집단적 기억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결합과 연속은 곧 해당 설화가 어떤 화소를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화소는 서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설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화소는 ‘단어’에 해당한다.¹⁰⁾

이 장에서는 단종 설화 각편에 나타난 핵심 화소들을 정리해보고 핵심 화소의 의미자질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후 핵심 화소간의 관계를 통해 단종 설화의 서사적 화두¹¹⁾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대상 텍스트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 수록된 단종유배 관련설화로서 다음과 같이 그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

9) 표인주, 「김덕령 설화의 기호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인식-〈광주전설〉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6쪽.

10)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회, 2017, 43쪽.

11) “서사적 화두”는 신동훈 선생님의 논문(각주10번)에서 빌려온 용어로서 해당 논문에서는 서사적 화두에 대해 “화소를 아우르는 서사적 구심” 혹은 “서사적 의미 축을 이루는 쟁점적 문젯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핵심화소들의 등장횟수를 통해 빈번하게 등장하는 화소들의 등장이유를 설화의 쟁점 때문으로 보고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표 1〉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단종유배 관련설화 목록

	전승지역	제목	핵심 화소
1	경북 영주시 안정면	노루가 점지해 준 단종의 묘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2	충남 홍성군 홍성면	단종 무덤과 노루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3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 사당 자리 잡은 무당 장 등불	영월의 흥년 장등불의 굿
4	강원 영월군 영월읍	상동면 집강(執綱)시켜준 단종	단종 제사 단종의 현몽
5	경북 김천시 봉산면	단종 시신 수습한 엄홍도	단종의 죽음(자살)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6	충남 아산군 둔포면	단종 유해 수습한 박낙촌	단종 제사 단종의 현몽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7	경북 선산군 무을면	단종 이야기	단종의 죽음(자살)
8	강원 평창군 진부면	단종 현몽으로 어린 신부에 게 장가든 정효준	엄홍도의 시신수습 단종 제사 단종 현몽
9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단종과 영월 엄씨	엄홍도의 시신수습 단종의 죽음(자살)
10	강원 양양군 현북면	단종과 충신 엄흥도(嚴興道)	단종과 엄홍도의 만남
11	강원 양양군 현북면	추경엽(秋敬燁)과 태백산신이 된 단종	영모전의 유래담 태백산 산신된 단종 단종의 죽음(타살)
12	강원 양양군 현북면	엄홍도(嚴興道)가 잡은 노루 장릉(莊陵)	장릉의 유래담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13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단종을 죽인 왕방연의 시신(侍臣)	단종의 죽음(타살) 시신(侍臣)의 구두출혈(九竅出血)
14	경기 남양주군 와부읍	단종의 최후	단종의 죽음(자살)
15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릉과 소나무의 신이	장릉의 유래담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16	강원 영월군 영월읍	충절 지킨 엄홍도	단종과 엄홍도의 만남 단종의 죽음(자살, 타살) 시신(侍臣)의 구두출혈(九竅出血)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17	경북 문경시 산양면	단종에게 충신한 충의공 이야기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18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을 돌보는 도깨비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19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단종의 묘를 발견한 박충원 선생	엄홍도의 시신수습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단종의 현몽
20	경북 문경시 산양면	단종의 묘를 써준 엄씨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21	경북 영주시 순흥면	단종의 묘를 정해준 노루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22	강원 태백시 삼수동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	태백산 산신된 단종 엄홍도의 시신수습 목발이 붙은 자리에 묘 씌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23	경북 영천시 신녕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	단종의 죽음(자살) 낙화암의 유래담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24	경북 영천시 대전동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영월 엄씨의 정성	엄홍도의 시신수습
25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의 원혼을 달래 준 박문제	단종과 엄홍도의 만남 단종의 죽음(자살)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목발이 붙은 자리에 묘 씌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26	충북 단양군 가곡면	단종의 죽음	단종의 죽음(자살) 엄홍도의 시신 수습 태백산 산신된 단종
27	경북 김천시 조마면	단종의 죽음을 슬퍼한 고은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28	강원 영월군 상동읍	단종의 혼령을 모신 여량 성황당 전설	단종지신위를 노산군 지위로 강등하여 마을이 평온해짐
29	강원 영월군 영월읍	무당굿으로 달랜 단종의 원한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30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백성들이 준 음식을 먹고 목숨을 구한 단종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31	경기 하남시 신장동	영월 엄씨가 단종 산소자리를 쓴 이유	엄홍도의 시신수습 목발이 붙은 자리에 묘 씌
3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결을 선택한 단종	단종의 죽음(자살)
33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	태백산 산신된 단종

34	충남 대덕군 탄동면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대왕	단종의 죽음(자살)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35	경북 영주시 단산면	태백산 신령이 된 단종	태백산 산신된 단종
36	충북 제천시 금성면	표주박에다 음식을 담아 단 종에게 보낸 원호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37	강원 영월군 영월읍	호랑이를 타고 단종을 뵈 조여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38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대왕의 죽음	단종의 죽음(자살, 타살) 엄홍도의 시신수습 목발이 붙은 자리에 묘 씌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39	강원 원주시 소초면	단종대의 유래-원천석	단종대의 유래담
40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이 쉬어넘던 쉼터	쉼터의 유래
41	강원 영월군 영월읍	군등치(君登峙)유래담	군등치의 유래
42	강원 영월군 영월읍	명라(鳴羅)고개	명라 고개의 유래
43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배일치(拜日峙)유래담	배일치의 유래
44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옥너봉 유래담	옥너봉의 유래
45	강원 영월군 영월읍	선돌(立石)유래담	선돌의 유래

앞서 역사적 사실이 허구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 안에서 재현될 때 이야기 서술 주체의 의도와 세계인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달리 말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부분과 선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뜻한다. 단종 설화에 등장하는 화소들은 이른바 ‘선택된 부분’이며 선택된 부분은 이야기 전승자의 전달 의도와 의지를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오른쪽에 이야기 각편의 핵심 화소들을 정리해보았다. 39번부터 45번까지는 지명 유래담인데 인물과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핵심 화소를 짚어내는 작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화소들은 ‘선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종 설화의 핵심 화소는 단종의 죽음, 엄홍도의 시신수습,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묘 씌,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단종의 현몽, 태백산 산신된 단종, 엄홍도 외 단

중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이다.

〈표 2〉 단종유배 관련설화 속 핵심 화소와 등장 횟수

핵심 화소	등장 횟수
단종의 죽음(자살)	11회
단종의 죽음(타살)	4회
엄홍도의 시신수습	19회
노루가 앉던 자리에 묘 씌	13회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6회
단종의 현몽	4회
태백산 산신된 단종	5회
엄홍도의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	6회

핵심 화소 중 ‘단종의 죽음’의 경우, 자살담과 타살담으로 나누어져서 전하고 있다. 단종의 죽음 이유가 자살일 경우, 단종이 자신에게 차마 사사(賜死)의 명을 전하지 못한 신하들이 자결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아랫 사람을 시켜 개고기를 먹자고 하고는 개 목을 매어두는 대신 자신의 목을 문고리에 걸어 이를 모르고 잡아당기게 하여 자살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타살일 경우에는 금부도사 왕방연과 함께 온 시신(侍臣) 중 한 명이 자진해서 단종을 죽이겠다고 하고 단종의 목을 눌러 죽이나 자신은 아홉 개의 구멍으로 피를 토한다(九竇出血)는 내용이다. 단종의 죽음을 타살로 이야기한 4편의 각편 중 2편에서는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다며 두 내용을 모두 전하고 있다.

‘엄홍도의 시신수습’ 화소는 ‘노루가 앉던 자리에 묘 씌’ 화소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종 설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소이다. 영월 지역의 호장으로 알려진 엄홍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지는 삼죽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써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임시 매장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엄홍도의 깊은 충심은 엄홍도

가 단종의 곡소리를 따라 단종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나 엄홍도가 동강에 빠진 단종의 시신을 건져냈다고 하는 내용으로도 전승되고 있을 만큼 단종 설화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엄홍도의 시신수습’과 함께 결합되어 등장하는 ‘노루가 앉던 자리에 묘를 씌’화소는 추운 겨울에 땅이 다 얼어있는데 노루가 앉던 자리가 따뜻할 것이라고 여겨 엄홍도가 그 자리에 묘를 썼다는 내용이다.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화소는 ‘단종의 현몽’화소와 함께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다.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화소는 원혼형 서사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조상신에 관한 내용과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단종의 죽음 이후 영월부사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데, 그 이유는 단종이 귀신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다 담대한 한 영월부사가 영월에 부임하자마자 단종의 제사를 지내고 단종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후 단종의 신원을 해주었다는 내용이다. 단종은 자신의 신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인 사람이나 세조에 대한 원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원혼형 서사와 차이를 보인다.

‘단종의 현몽’화소는 단종이 자신의 제사를 지내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단종의 제사를 살뜰히 챙긴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대로 지역의 군장을 맡게 되거나 친구의 딸과 혼인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 화소가 포함된 이야기의 분량은 다른 이야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데, 단종이 죽어서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흉년이 계속되자 단종이 산신령으로 있는 태백산에 많은 무당들이 모여 굿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와 단종의 죽음을 모르고 머루를 따서 단종에게 가져가고 있던 조여라는 사람(혹은 추경엽)이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과 마주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엄홍도 외 단종에 충심을 보이는 존재’화소는 단종에게 충심을 보이는 존재들에 관한 내용이다. 예컨대 소나무가 단종의 묘인 장릉을 향해 굽어졌

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 또는 한 시골노인의 꿈에 나온 도깨비가 산나무를 해가려는 노인을 향해 ‘귀하신 어른이 잠들어 있는 곳이니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되고 나무를 잘라서도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며 전승자는 이에 대해 ‘인간들이 보살피지 않을때는 도깨비라도 단종을 보살핀다’는 전설이라고 덧붙인다.

이렇게 정리된 단종 설화의 핵심 화소들이 지닌 의미자질들을 관계 안에서 추출해보고자 한다. 핵심 화소들 중 여섯 개의 핵심 화소들은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

우선 단종의 죽음(자살)과 단종의 죽음(타살)화소의 관계이다. 단종의 죽음이 자살일 경우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반면 타살일 경우에는 ‘자살’일수도 있고 ‘타살’일수도 있다고 하며 단종 죽음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시신의 구두출혈 장면을 서술하여 단종을 죽인 자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전자의 화소가 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타인의)생의 지속’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한편, 후자의 화소에서는 세조의 사람이 단종을 죽이고, 단종을 죽인 자 역시 죽게 됨으로써 세조와 단종 각각 타인의 죽음을 통한 ‘(자신의)입장의 지속’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으로 엄홍도의 시신수습 화소와 태백산 산신된 단종 화소가 대립항을 이룬다. 엄홍도의 시신수습 화소에서는 유일하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엄홍도의 충심어린 모습과 동시에 죽은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하는 단종의 비참함이 드러난다. 반면 태백산 산신이 된 단종 화소에서는 죽음 직후 살아생전 왕의 기품을 지닌 채로 태백산 신령이 되어 초연히 떠나는 단종의 모습이 그려진다. 전자의 화소가 단종의 모습에 대해 비참함이라는 자질을 갖는다면 후자의 화소에서는 신성함을 자질로 갖는다.

세 번째로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화소와 단종의 현몽 화소가 대립항을 이룬다.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화소에서는 자신의 시신을 제대로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단종이 등장하는데, 귀신 단종을 마주 대하지 못해 부사 세 명이 차례로 죽어간다. 단종의 현몽 화소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밝혀주거나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들을 위해 꿈에 나타나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소망을 이뤄주는 단종이 등장한다. 단종과 민중의 관계에 대해 전자의 화소가 마음의 거리감 즉 소통 불능성이라는 자질을 갖는다면 후자의 화소에서는 소통 가능성을 자질로 갖는다.

〈표 3〉 핵심 화소간의 관계와 의미자질

핵심 화소	단종의 죽음(자살)	단종의 죽음(타살)	엄홍도의 시신수습	태백산 산신된 단종	귀신 단종을 신원한 사람	단종의 현몽
의미 자질	(타인의) 생의 지속	(자신의) 입장의 지속	단종의 비참함	단종의 신성함	단종과 민중의 소통불능성	단종과 민중의 소통가능성

이처럼 단종 설화의 핵심 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립적인 의미자질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대립적인 의미자질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단종 설화는 단종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깊이 관련한 민중의 이야기로서 민중의 입장에서 단종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담고 있다.

자결하는 신화와 왕의 모습에는 타인을 살리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반면, 대의를 위해 단종을 죽이는 왕방연의 시신과 그런 왕방연의 시신을 구두출혈하게 만드는 하늘(또는 단종)의 뜻은 역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양자 간의 대립을 드러낸다. 죽음에 대해 이타성이나 도구성을 부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발로이다. 단종의 죽음 이후 버려진 시신으로 재현되는 비참함과 태백산 신령이라는 신성함이라는 자질의 추출을 통해 단종 죽음 이후 민중에게 단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불능성과 소통가능성이라는 자질을 통

해 단종이 죽음 이후 민중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단종 설화는 단종의 죽음을 대하는 이야기 전승자들의 태도와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단종의 죽음은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권력 간의 대립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죽은 단종의 시체는 비참함의 형상화이면서도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신성성을 가지는데, 그 관계 안에서 단종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염원을 담아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대상화된 단종의 모습은 단종과 민중 간의 소통이 단종 죽음 이후에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중에 대한 단종의 적극적인 발화는 그가 죽은 뒤 ‘귀신’의 모습 혹은 꿈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성성을 갖춘 단종의 발화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해진다.

- (가) 정효준은 단종의 제사를 받드는 선비로 두 번의 상처 경험이 있다. 정효준은 자신의 친구 이진경의 집에 가서 장기를 두곤 하는데, 친구의 딸을 내심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한다. 고민 끝에 친구에게 털어놓지만 친구는 그 소원만은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진경과 그의 부인의 꿈에 단종이 나타나 ‘정효준은 후복이 좋은 사람이니 사위를 삼으면 어떻겠나’라고 한다. 부부는 꿈에서 깨어나 반신반의하는데, 단종이 또 꿈에 나타나 노기를 띤 음성으로 ‘내 걸음을 여러번 하게 하지 말게’하며 정효준을 사위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이어 단종은 세 번째로 부부의 꿈에 나타나 이진경 부인의 불기를 삼십대나 때리는데 깨어나보니 실제로 엉덩이에 명자국이 시커멓게 들어있었다. 부부는 날이 새길 기다려 정효준에게 달려가 혼인을 허락한다. -“단종 현몽으로 어린 신부에게 장가든 정효준” (『(중편)대계』 2-10, 508-514쪽)

제시된 (가)는 단종의 현몽 화소가 들어가 있는 각편의 내용으로 이 이야기에서 단종은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는 정효준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친구 이진경의 꿈에 세 번이나 등장한다. 두 번째 현몽하여 신신당부했음에도 이진경의 부인이 혼인을 허락하지 않자 세 번째로 나타나서는 이진경 부인의 불기를 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민중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단종의 이러한 적극적인 발화와 행위는 자신의 제사를 지내준 이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나타나며 자신의 신원을 밝혀준 부사에게도 일이 끝난 후 현몽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고 복을 전한다. 이처럼 단종은 죽음 후 민중의 도움으로 산에 묻히게 되며 죽음 이후 신이 되어서는 민중의 삶에 깊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호소통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2) 단종 설화 속 '엄홍도'의 행위

핵심 화소와 더불어 서사적 특성에서 살펴볼 요소는 바로 인물의 행위이다. 설화의 서사구조 상에서 인물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레마스가 지적하는 설화의 역순의 논리적 전제¹²⁾에 따르면 사건은 설화 안에서 최초의 상황(결핍)을 최후의 상황(충족)으로 만드는데 필연적인 조건이 되며 앞선 사건은 뒤에 나올 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물의 선택과 행위이므로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인물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종 설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소는 엄홍도의 시신수습이며 이에 따라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엄홍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야기 각편에서 엄홍도, 김홍도, 홍도, 엄호장 등으로 불리는데, 죽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유일한 자이다. 이 엄홍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둘 시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죽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지계에

12) 박인철, “제3장. 설화이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151~152쪽.

매고 산으로 간 후 한겨울에 노루가 앉았다가 떠난 양지바른 자리에 묻게 되는데, 그곳을 ‘장릉’이라고 전한다.

엄홍도의 시신수습과 장릉이라는 묘에 관해서는 이야기 각편의 흐름이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엄홍도가 시신을 수습하며 지금의 장릉 자리에 임시로 묻었다는 데서 그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엄홍도가 시신을 수습하고 지금의 장릉 자리에 가묘하고 난 후 다른 사람이 그 묘의 위치를 찾아 새로이 완봉한 이야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나라에서 단종의 시신을 찾아 공식적으로 묘를 만드려는 중종 시기의 이야기로 보여진다.

엄홍도에 의해 매장된 단종이 귀신이 되어 영월부사들 앞에 나타나고, 단종을 본 부사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박충원(호는 낙촌)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영월부사직을 맡는다. 이후 담력이 있는 그가 귀신이 된 단종을 만나서 묘를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신원을 부탁받는다든 내용은이다. 자신을 보고도 죽지 않은 부사에게 단종 귀신은 원하는 바를 말한 후 자신은 태백산 신령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다. 이때 시신을 찾아 물어달라는 단종의 말은 한 많은 삶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충분한 자신의 원한을 전하지는 않는다. 이야기 안에서 단종은 세조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제대로 물어달라는 내용의 신원을 부탁하며, 엄홍도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후 사람들에 의해 찾아진 엄홍도는 벼슬을 얻게 되기도 한다. 이때 이 상황과 관련하여 이야기 전승자들이 구술한 내용에서는 엄홍도에 관한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종 설화가 단종의 죽음에 집착하는 한편으로, 이 엄홍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관의 분위기는 주로 일관적인 가운데 드물지만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 (나) “사육신들보다도 엄충신의 그것은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조금도 어떤 무슨 기대나 그야말로 후손이나 후손들의 아무 약속도 없는 가운데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이 엄홍도의 가치죠. 엄충신의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

생각을 해보죠. 아, 엄은 단종대 승하하신 때의 일이고 누구한테 어떤 기 대나 여망을 약속받지는 상황속에서 약속받지 않고, 자기 만이 남한테 알 리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들 삼형제, 처자를 가진 아들 삼형제들도 다 희생될 것을 각오하고 처치했다고 하는 것이 숭 고하고 순수한 것이죠”-“충절지킨 엄홍도”(『대계』(2-8), 214쪽)

(다) “그래서 그 영월 엄씨라는 사람이 상놈이야. 참 천하건달이라는 사람이 엄씨넨데. ‘나도 한번 양반이나 돼봐야겠다.’ 그러고선 밤에 거길 올라갔다 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저기 종도 죽고 그이(단종)도 그냥 모가지 맨 채로 누가 끌러놓은 사람이 없는거야. 그 사람이 모가지 끌러서 옷을 깨끗 이 가다듬어서 메고 내려오는데, 커다란 노루가 필씩 또 뛰더라.”-“단종과 영월엄씨”(『(증편)대계』(1-12), 264-265쪽)

제시된 (나), (다)는 엄홍도의 행적에 대한 전승자들의 의견이다. 제시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충신’ 엄홍도의 행적을 자세히 서술하며 그의 충심을 강조하는 각편이 있는 반면 사실은 건달이던 엄홍도가 애초에 ‘벼슬’을 노리고 혹은 ‘양반’이 되고 싶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평가가 들어간 각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엄홍도의 충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시신수습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조한다. 반면 (다)의 경우는 엄홍도의 행위에 는 사실 ‘벼슬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대한 ‘상놈’이라든가 ‘천하건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엄홍도의 행위를 처음부터 왕에 대한 존경이나 이타심이 아닌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 지게 한다.

단종 설화의 핵심 화소들을 통해서 단종 설화가 ‘단종 죽음’을 서사적 화두로 삼고 있으며 핵심 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 안에서 단종과 단종의 죽음이 민중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엄홍도

의 중심이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과 엄홍도의 시신수습에 대한 전승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점은 단종 설화가 단종의 비극성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종의 죽음을 구성하는 이야기 전승 주체의 입장에서 민중을 주체로 하여 구성된 허구적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3.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 설화

문화적 기억은 집단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인지능력으로서의 기억을 의미하며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적 지식과 구분된다.¹³⁾ 역사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주체에 귀속되는 다양한 인식과 감정의 문제로 과거를 인식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부상하였다.¹⁴⁾ 이러한 기억에 대한 연구자인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이론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개념을 통해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설화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구술문화에서는 기억으로 정보를 교환, 전승하기 때문에 기억의 공간은 제한적이고 집단정체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존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⁵⁾ 여기서 구술문화는 월터 옹이 말한 문자 문화 이전의 시대로 문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의미한다. 단종 설화는 이야기 전승 주체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구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즉 기억의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저장기억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13) 윤미애, 「매체와 문화적 기억」, 『독일어문화권연구』 11,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2, 39쪽.

14)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인문콘텐츠학회, 2021, 72쪽.

15)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1부 6장. 기능기억과 저장기억: 기억의 두 가지 유형」,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8, 184쪽.

앞서 핵심화소 간의 대립성이 기억의 주체에 의한 양가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능기억은 문화적 기억의 보유자 혹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상징하며 그 주체는 특정한 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능기억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정통성, 정통성의 소멸, 명징화로 구분지을 수 있다. 정통성은 권력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억의 형식으로 소위 공적 기억이다. 정통성의 소멸은 이러한 공적 기억에 대해 나타나는 비판적인 비공식적 반대기억으로서 반기억, 탈정당화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명징화는 집단적 정체성의 부각에 필요한 상징적인 표현형식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단종 설화에서는 기능기억의 어떤 형식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1) 단종신 숭배로 '명징화'된 기억으로서의 단종 설화

단종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었는데, 특히 강원도 영월지역에서 많이 회자되었다. 이 영월 지역에서 단종제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종의 유배지가 영월이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역신으로 좌정하게 된 계기로서의 신적 존재의 지역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한다. 딸 페르세포네를 잃고 방황하던 여신 데메테르가 엘레우시스라는 지역에 와서 켈레오스 왕가의 환대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자신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할 것을 엘레우시스 왕에게 명령했다고 한다. 이것이 엘레우시스 제의의 배경 설화이다.¹⁷⁾ 이와 비교해볼 때 단종 역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고 그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월의 지역신이 되었다는 흐름은 자연스럽다.

16) 알라이다 아스만(2018), 앞의 책, 185~188쪽.

17) 최혜영,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이시스·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3, 한국서양사학회, 2004, 12쪽.

그런데 단종신의 숭배는 단순히 영월지방에서의 유배라는 인연 때문만은 아니다. 단종 설화라는 문화적 기억의 명징화가 바로 단종신의 숭배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명징화가 집단의 정체성 부각에 필요한 상징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때, 단종제는 단종 설화라는 기억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다.

단종 설화는 단종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고, 그 기억을 형성하는 매체는 구술전승을 위한 기억의 형식이다. 단종은 구술 전승되는 이야기를 통해 기억되며, 그 기억은 왕의 죽음과 이 죽음에 얽힌 민중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기억’이라는 행위와 관련하여 알라디아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은 망자 추모를 본질로 하면서도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을 위한 것¹⁸⁾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억은 일종의 회상이다. 여기서 “회상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항상 현재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회상할 시점에서 기억된 것이 치환, 변형, 왜곡, 가치 전도 내지는 복구되는 것이 불가피”¹⁹⁾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망자 숭배와 기억 행위의 관계에 대한 알라디아 아스만의 설명은 단종의 죽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단종을 신으로 여기고자 하는 민중 심리의 근거가 된다.

단종 설화는 왕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민중’에 대한 민중의 기억이다. 살아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왕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 민중 앞에 나타나 신원을 호소하고, 또는 꿈자리에 나타나 명을 내린다. 이 같은 내용이 구술되는 까닭은 죽은 왕을 위하고 그에 관여된 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민중의 심리가 근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종 숭배 행위 근원에는 무엇보다도 민중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18) 알라디아 아스만(2018), 앞의 책, 39쪽.

19) 알라디아 아스만(2018), 위의 책, 34쪽.

전설은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적 지향 사이의 갈등이 불리일으키는 비극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설에서 초자연적 세계는 숭앙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며 전설의 비극성은 인간적 속성에서 비롯된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것²¹⁾으로 본다. 그런데 단종 설화의 경우 갈등과 그로 인한 비극은 인간적 세계 안에서 불거지는 것이며, 초자연적 세계는 인간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자연적인 세계는 단종 설화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인간의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좌절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돕는 신이 자리하는 공간이다.

단종은 비록 죽었지만, 단종의 죽음 가까이에 이를 목격한 민중이 있었고, 그들이 단종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단종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종의 죽음을 이야기해 나가며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려한다는 점에서 단종이 신으로 등장하는 초자연적 세계는 그러한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의 공간이자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라) 태백산 준령을 타고 분포돼 있는 성황당은 노산군을 대개 모신다. 정선 여량리에도 성황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단종지신이 아닌 노산군지신을 모시고 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단종 임금이 청룡포에서 생활할 때 심심하여 연을 띄웠는데, 그 연이 그 성황당 느티나무에 가서 걸렸다. 사람들이 가서 연을 벗겨보니 단종 임금의 친필이 써 있었기에 그 성황당에다

20) 이와 관련해서 프로이트가 말한 신의 임무를 참고해보면 종교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단종 설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신의 세가지 임무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자연의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운명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문명생활이 강요하는 고통과 박탈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어느 환상의 미래”,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20, 189쪽 참고.

21) 강등학 외(2016), 앞의 책, 160~161쪽.

단종지신위로 모셨다. 그런 후 여량리 일대에 괴질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어느 과객이 지나가면서 이 동네는 성황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인데,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놓은 것을 단종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별로 괴질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 다시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모시고 제사를 지냈더니 동네가 평탄해졌다고 한다. “단종의 혼령을 모신 여량 성황동 전설”(『대계』(2-8), 57-58쪽)

제시된 (라)는 노산군 지신을 모시는 성황당에 관한 이야기로, 이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는 비극적 삶과 죽음을 겪은 노산군이 추복된 단종보다 마을 신으로서 더욱 적합한 신적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²²⁾도 있고, 단종에게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²³⁾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단종이 단종지신위에 분노하고 노산군지신위에 만족하였다는 내용은 단종이 자신이 유배되었을 때 노산군이었고 그 당시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증을 전제로 한다. ‘한 많은’ 왕을 지역신으로 모시기 위한 지역민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종 죽음 당시 민중들은 조선 도처에 일어난 여러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영월에 부임한 군수가 7개월간 3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그해에 전염병이 유난히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을 단종의 원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었다고 한다.²⁴⁾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사건들(자연재해나 사망, 질병 등)의 원인을 단종의 죽음에서 찾음으로써 단종의 원한을 달래는 일을 하는 것, 즉 단종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그에게

22) 김효경, 「단종 제사와 신앙의 전개 과정-정부 및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182쪽.

23) 류인순, 「강원지방 인물전설 연구-왕 및 왕관계 전설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0, 강원문화연구소, 1990, 65쪽.

24) 김효경(1998), 앞의 논문, 276쪽.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단종의 비극적 삶과 원한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신격화의 당위성을 보장받는 일은 단종을 신으로 모시며 해소하고 싶은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단종의 신격화에 대한 합리화는 단종의 현몽 화소에서 잘 드러난다. 서종원의 정리²⁵⁾에 따라 실존인물의 신격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독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인물이 많다는 점.
- ② 이들 인물 중에는 장군이 많다는 점.
- ③ 인물의 행동이 일반인들에게 귀감(龜鑑)이 되었다는 점.
- ④ 인물이 특정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점.
- ⑤ 인물이 비록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후대에 신원(伸冤) 내지 복원(復原)되었다는 점.
- ⑥ 민중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진 계층이라는 점.
- ⑦ 실존 인물이 마을이나 국가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

서종원이 제시한 7가지 요인 중 단종신에 해당하는 요인은 ④번 인물이 특정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점, ⑤번 인물이 비록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후대에 신원(伸冤)내지 복원(復原)되었다는 점, ⑥번 민중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진 계층이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종이 지역신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단종이 ‘왕’으로서 ‘억울하게 죽은 후’ 후대에 ‘신원’되었고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유배를 했던 경험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살아생전에 행해졌어야 할 ③번과 ⑦번에 해당하는 일을 단종은 죽어서 행한다는 점에서 ②번을 제외한 신격

25) 서종원은 이 중에서도 기존연구자들은 ⑤번의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고 하였다.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99~100쪽.

화의 요인을 모두 갖추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종은 어린나이에 즉위 및 폐위 되었고 17살의 어린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내세울만한 치적도 없었고, 유배생활 역시 매우 곤궁하고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지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살아생전에 치적이 없던 왕은 죽어서 지역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종 설화 안에서 ‘단종의 현몽’이라는 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앞서 정효준의 혼인에 관여했던 단종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종은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영월군지』에 기록된 전설을 살펴보면 지역민들은 단종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도 해결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단종 설화는 정작 단종이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는지 어떤 당쟁에 휘말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단종 죽음이라는 사건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단종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다. 왕의 죽음에 대한 민중의 관심과 지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단종의 현몽 화소에서 단종의 제사를 지내는 자가 복을 입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통해 민중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왕을 ‘잘 모시는’ 자의 입장에서 이

26) 『영월군지(1992)』에 수록된 단종 현몽에 관한 전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61년 어느날 영모전 관리인 김기만에게 단종이 현몽하여 뜰 앞이 몹시 어지러우니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였다. 김씨는 그냥 지나쳤는데 현몽이 계속되어 끝내는 몸이 아파 견딜 수 없어 뜰 앞을 자세히 살펴보니 감쪽같이 뗏장을 떼었다가 덮은 자리가 있었다. 뗏장을 들어내 보니 작은 껍체에 유골을 넣어 암장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또 영월 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간부에게 단종이 여러번 현몽하여 영모전 경내를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하므로 경내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6.25사변 당시 괴뢰군 시체가 영모전 마루 밑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강원향토사연구회, 『영월군지』, 영월군, 1992, 930쪽. 여기서 “영모전”은 숙종24년인 1698년 당시 영월의 주민들이 단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곳이다.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끝내 잘 모신 자로서의 민중이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서사에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종 설화는 단종에 대한 민중의 감정과 기대 등을 집단의 정체성으로 구성하며 이는 현재적 맥락에서 집단의 안정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서 종교적인 행사로 상징화된다. 그러므로 단종 숭배나 단종제는 알라이다 이스만이 말하는 기능기억의 명칭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반기억'으로서의 단종 설화

구술 전승되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전승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의 주체가 되어 허구적 세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 자신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기도 한다. 또 자신이 구술하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내용을 번복하거나 메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전승되는 단종 설화 속에서 단종의 죽음이 자살과 타살로 나누어져 전승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구술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단종의 죽음이 자살로 그려지는 경우가 타살로 그려지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 단종의 자살 이야기가 많은 까닭에 대해 기존논의에서는 이야기의 비극성을 강화하여 단종에 대한 연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서술전략²⁷⁾, 혹은 단종에 대한 애도와 존경²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단종의 자살이야기가 구비설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²⁹⁾을 들어 단종의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기도 한다.

〈세조실록〉에서도 단종의 죽음을 자살로 기록하였다. 이 경우에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지배층의 책임 회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종 설화 안에서 단종의 자살은 차마 사약을 전해주지 못하고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

27) 조수민·한태문(2016), 앞의 논문, 170쪽.

28) 이승민(2020), 앞의 논문, 116쪽.

29) 이승민(2020), 위의 논문, 114쪽.

고 마는 신하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의 자살은 타살의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단종의 죽음을 자살로 전승하는 데에는 단종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그려내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타살을 ‘자살’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 “단종은 사실 세조가 보낸 사약을 마시고 죽었지만은 본인이 자살한 것으로 위장을 한 것은 세조측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세조 원망을 덜 한다고. 그래서 꾸민 사실인데.”-“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디지털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https://gubi.aks.ac.kr/web/>)

제시된 (마)는 세조가 신하들을 시켜 사약을 단종에게 보내자 신하들이 모두 강물에 투신자살하게 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단종이 자살을 한다는 내용과 엄홍도의 시신수습 내용을 구술한 후 이야기의 말미에 이르러 화자가 덧붙인 발화 내용으로서 2014년 채록된 것이다. 고정된 기억을 따라 단종의 죽음을 자살이었다고 전하던 화자는 구연 끝부분에 이르러 단종의 자살을 공식화한 세조에 대해 비판한다. 구술 전승자로서 단종의 자살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구술채록현장에서 단종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했다는 점은 구술전승의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대한 반기억적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알아이다 아스만의 반기억은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세워지는 공식적인 기억이 있고, 이러한 기억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비롯된 비공식적인 기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단종의 자살이라는 집단적 기억에 대해 화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기억으로서 세조의 사약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기억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도에 대한 서술에서도 단서

를 찾을 수 있다. 엄홍도는 단종이 유배 생활 중 회한에 잠겨 곡소리를 내자 이를 듣고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었으며 동강에 빠진 시신을 찾기 위해 강가로 달려가 단종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린 사람이다. 또한 삼죽이 멀할까 두려워 그의 자손들과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린 나머지 숙종대왕이 자신을 찾겠다는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엄홍도의 충심을 의심하는 비난이 구술되는 이야기 상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단종 설화가 단종의 유배와 죽음의 사건이 지닌 비극성 말고도 단종의 죽음에 민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도로 개입되어있는지에 대한 내용 구성의 의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야기를 구술 전승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단종의 죽음과 관련한 민중 입장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억은 그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라는 반기억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엄홍도의 개인적 욕망이라는 새로운 시선은 엄홍도의 충심이라는 공식적 기억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반기억이다. 또한 이는 역사적 사실의 전달 혹은 공식적 기억을 구술 전승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지 역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엄홍도가 미래를 예견하여 양반이 되고자 왕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이야기 전승 과정에서 현재에 가까운 시점에서 삽입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종 추복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입장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³⁰⁾ 누

30)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권되기까지 232년이 걸렸는데, 그 오랜 과정에서 단종 추복에 관해 사림의 요청이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노산군 치제를 허락한 국왕은 중종, 광해군, 효종, 현종 등이었고, 연산군의 경우 세조의 덕을 치하하며 노산군에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선조의 경우 치제를 재개하도록 하긴 하였으나 노산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숙종 대에 이르러 왕이 주도하여 단종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왕권 강화의 의도로 보는 입장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승범, 「역사화해 관점에서 본 조선 숙종 대 노산군 복권 조치」, 『서강인문논총』 5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63~196쪽.

구도 예상할 수 없던 결말을 엄홍도가 이미 예상하고 양반이 되기 위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위험한 일을 했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 전승 주체들은 단종 설화를 구술 전승하는 가운데 역사적 사실의 전달 의무로부터 점차 멀어지며 허구적이고 유희적인 세계로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며 기존의 이야기에 반하는 이야기 즉,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단종 설화는 문화적 기억으로서 구술 전승되는 이야기에 대한 전승자들의 재구성의 의지를 보여주며 고정된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품은 전설의 잠재력을 드러낸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 설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억이론 연구자인 알라이다 아스만은 구술 전승되는 기억들은 주체가 없으며 불변성을 지닌다고 하지만 단종 설화는 두 가지 특성을 통해서 저장 기억이 아닌 기능기억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서 단종 설화가 단종신 숭배의 맥락이 된다는 점이다. 단종 설화 속 핵심화소들의 의미 자질은 일관되지 않고 상충하는 듯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를 통해 단종에 관한 심리적 거리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단종 숭배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단종 설화를 구술하는 가운데 단종 죽음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거나 엄홍도에 대한 평가적 발화가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 단종 설화를 허구적 서사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으로서 단종 설화는 이야기 전승자들이 기억의 주체가 되어 단종의 죽음과 관련한 민중의 경험을 서술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단종 숭배로 이어진다. 또한 이미 구성된 이야기에 대한 구연자의 메타적 발화나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통해 공식적 기억에 대한 전복의 시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종 설화는 구술전승의 주체들이 처한 맥락과 현재적 관점에서 계속 재구성될 수 있는 문화적 기억이며 전설 내부에는 변화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역락, 2013~201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https://gubi.aks.ac.kr/web/>)

2. 논문

계승범, 「역사화해 관점에서 본 조선 숙종 대 노산군 복권 조치」, 『서강인문논총』 5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63~196쪽.

김신정, 「〈아기장수〉설화 속 부모의 피해자서사연구-『한국구비문학대계』의 “질만한대 지기”유형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173~197쪽.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 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261~289쪽.

김효경, 「단종 제사와 신앙의 전개 과정-정부 및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159~188쪽.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97~122쪽.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회, 2017, 35~83쪽.

윤미애, 「매체와 문화적 기억」, 『독일어문화권연구』 11,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02, 38~62쪽.

유인순, 「강원지방 인물전설 연구-왕 및 왕관계 전설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10, 강원문화연구소, 1990, 29~92쪽.

윤 정, 「숙종대 단종 추복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209~246쪽.

이승민, 「단종 죽음 관련 설화에 담긴 전승의식 연구-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비교를 통하여」, 『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회, 2020, 103~129쪽.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 안 아스만과 알라이 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인문콘텐츠학회, 2021, 71~93쪽.

조수미·한태문, 「유배(流配)[귀양] 인물 전설의 신원(伸冤)적 성격과 서술전략

- 연구-단종 전설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59~178쪽.
- 주재원,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 기억의 재현-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1,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9~32쪽.
- 최명환, 「단종설화의 의식 변이양상-단종 복위 전후 영월 지역민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강원민속』 17,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3, 255~285쪽.
- 최혜영,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 이시스, 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3, 한국서양사학회, 2004, 5~32쪽.
- 표인주, 「김덕령 설화의 기호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인식-〈광주전설〉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5~35쪽.
- 허용호, 「태백산 신령 단종본풀이의 구성과 ‘공동의 신비체험’」,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369~402쪽.

3. 단행본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6, 1~580쪽.
- 강원향토사연구회, 『영월군지』, 영월군, 1992, 1~1013쪽.
- 박인철, 『파리학과와 기호학』, 민음사, 2003, 1~516쪽.
- 스티브 코헨·린다 사이어스, 임병권·이호 역, 『이야기하기의 이론: 소설과영화의 문화기호학』, 한나래, 1997, 1~254쪽.
- 알라이다,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1~583쪽.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3, 1~570쪽.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20, 1~320쪽.
- 제레미 템블링, 이호 역,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예림기획, 2000, 1~294쪽.
-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1~794쪽.
-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20, 1~464쪽.

ABSTRACT

Danjong's Story as a Cultural Memory

Kim, Sin-jeong

Danjong(1441-1457), the six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led a tragic life. His story was passed down orally as a legend that included both fact and fiction, and consisted of content that embodied the tragedy of his death and his after death. By forming and transmitting cultural memories of his death, the legend of Danjong became the catalyst for the subsequent worship of the god Danjong. In addition, storytellers display conflicting attitudes toward Heung-do Uhm, a person close to king Danjong. On the one hand, Heung-do Uhm, who risked death and buried Danjong's corpse in the mountains, is remembered as a loyal subject, but on the other hand, he is also evaluated as a person who attempted to improve his status.

The story can be defined as a cultural functional memory as per Aleida Assman's memory theory. According to her, memory has a 'technology' for storage as well as a 'vitality' oriented toward reconstruction and change. Accordingly, this story appears to possess this 'vitality'. As a cultural functional memory, this story continues to be connected with the present of the story-enjoying class. It can, thus, be said that it holds the possibility of change with them as the subject.

Key Words

Danjong's story, Danjong's banishment, Heung-do Uhm, cultural memory, functional memory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